



# 교섭속보



2021년 8월 6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 전체 요구안 심의 종료, 실무교섭으로 전환

# 5차 교섭 내내 아무것도 없었다.

5차 교섭은 ▲정명퇴 사직자리 충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로 진행됐다. 교섭 참관으로는 안암 영상의학과 최덕용 조합원과, 구로 영상의학과 이성재 조합원이 참가했으며 본회의는 약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왼쪽부터) 최덕용조합원, 이성재 조합원

교섭위원 인사를 통해 최덕용 조합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의료원의 성장 과정에서 희생했던 직원들에 대한 요구와 보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52시간 관련해서 직원 관심이 높다.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근무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결정이 잘 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이성재 조합원은 “작년 임금 동결로 올 해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전했다.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근무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결정이 잘 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이성재 조합원은 “작년 임금 동결로 올 해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전했다.

### 김영훈 의무부총장,

직원들의 바람을 잘 답을 수 있는 교섭 되길.

### 노재옥 지부장,

직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향적인 답변 기대

대표위원 인사말을 통해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직원들의 복지, 희망, 바람을 잘 답을 수 있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 다들 힘든 시기지만 의료원이 성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려움을 직원들과 헤아리고 그럴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



고 있다.” 는 말을 건넸다. 이어 노재옥 지부장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과 관련해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영웅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홍보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대정부 상대로 노정교섭을 진행중인데 합의가 잘 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오늘 마지막 요구안을 심의하고 실무교섭으로 전환될텐데 의료원의 전향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 의료원의 한결같은 대답, “교섭대상이 아니다.”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왜 교섭대상이 아납니까?

▲정·명퇴 사직자리 충원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안을 심의한 사측의 답변은 초지일관 “교섭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정명퇴 자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인데 왜 아닌가” 라고 말하며 단체협약 내용을 열거하며 “사측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공석인 자리가 19년부터 20년까지 71명 중 31자리에 이른다.” 며 목소리를 높였고,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충원 요구 또한 지난 5월 포탈을 통해 응급실의 열악함을 폭로한 응급실등의 인력 충원 요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의료원은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단체협약서 26조 인력보충 1항에는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정원정책을 유지하여야 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인력충원 요구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엄연한 교섭대상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사직의 기로에 서있는 직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인건비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의료원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하지 않는 것이 기조다.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안 심의에 대한 답변으로 의료원은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기조’ 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측 교섭위원들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20%가 넘어가고 있다.’ 고 말하며 의료원의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의료원 총평

**“의료원의 임금 지불 능력안에서 배분 되어야 한다.”**

모든 심의가 끝난 뒤 우리지부는 5차 교섭에서 다뤘던 임금 등의 요구안에 대한 의료원 총평을 요청했다.

이에 의료원은 ‘단체교섭은 의료원의 근로조건향상과 함께 병원향상과 지속 발전, 직원의 자부심을 위한 것’ 이라며 임금 논의는 실무교섭에서, 단체협약 및 신설 요구안은 노사협의회 등에서 하자고 말했다. 뒤이어 임금안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임금 지불 능력안에서 배분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 의료원의 초지일관 답변회피,

**직원들의 실망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올 해도 어김없었다. 5차 교섭 내내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이런 교섭이 노사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줄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연구 용역을 통한 노사 관계 개선을 부르짖었으나 의료원의 이 같은 태도는 또 다시 실망스럽기만 하다.

결국 실무교섭을 통해 자율타결이나 총파업이나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만큼 실무 교섭에 참가하는 위원들은 8,000여 명의 눈과 귀가 향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율 타결을 위한 안을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것이다.

5차 산별현장교섭 요구안 심의 결과	
노동조합 요구안	의료원 답변
정·명퇴 사직자리 충원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자연감소분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은 즉시 100% 충원하고 있다. 일반기술직, 업무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 다수 병원에서는 이미 간접고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즉시 정규직 100% 요구는 경영상의 인건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비정규직 부분을 확대는 안하는 것이 기조이다. 계속 고민하고 있다. 타 대학은 일부 간접고용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감안 해줘야 한다. 저희 병원은 직접고용을 하고 있다. 이해해달라.
현장문제 해결위한 부서별 인력충원 요구	안암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성과가 나오게 되면 1년 더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안암, 안산 응급실 안산은 지역적 핸디캡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코로나 등 집중적으로 로딩이 많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급센터등 필요한 부서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달라.

5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실무교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며 ‘실무교섭에서 타결안이 나오지 않으면 본교섭으로 전환하겠다’는 노측 제안에 사측 교섭위원은 본교섭은 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여태까지 해 온대로 실무교섭위원에게 전권을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10년의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자율타결은 단 1번 밖에 없었다.

대표위원도 아닌 교섭위원의 이 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직원이 초요의 자산이다. 죽을 만큼 힘든데, 참고 있는 거야. 올해엔 해 줘

## 4. 인력충원이 답이다!

고대의료원의 인력정책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공석]을 [기존 인원으로 메우기]이다. 단체협약 조항이 있으나 10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다. 한편, 노사 합의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노사 연구용역 TF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문제의 개선과제로 ▲병원 증설에 따른 추가적인 직종별 적정 인력 산정 ▲신규 채용 인력의 정규직 중심 원칙 확립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 말로 요구안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노사 상생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 교섭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 단체협약 26조[인력보충] 2항 - 정·명퇴 사직자리 충원

의료원은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계속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양팀의 경우 정원 자리도 채우지 못해 기존 인원이 2명~3명 몫을 감당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명퇴 사직 자리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확인 한 바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으며 결국 정규직 충원은 50% 밖에 미치지 못했다.

### ■ 2019년-2020년 사직자리 충원 현황

병원	정명퇴 사직자	정규직 충원	비정규직 대체	미충원	미충원율	영양팀 비정규직 대체	영양팀 공석
안암	30명	15명	7명	8	50%	8명 중 2명	8자리 중 3자리 공석
구로	21명	15명	6명	X	28%	5명 중 0명	x
안산	20명	10명	9명	1	50%	6명 중 4명	x
총계	71명	40명	22명	9	평균 43%	19명 중 6명	3자리

### ● 단체협약 26조[인력보충] 인력보충 4항 -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으로 가능한 비정규직(시간제)을 고용하지 않으며,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시간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한다.

비정규직은 같은 부서 내에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차별처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사유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 사업장인만큼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고대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24%를 넘어가고 있어 단계적인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병원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변화추이에 따르면 안암 21.98% 구로 26.56%, 안산 32.0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병원별 비정규직 인력 증감율(12월 말 기준)

	구분	안양	증감율	구로	증감율	안산	증감율
2019	계약직	261	6.53%	222	21.31%	154	20.31%
	시간직	159	15.21%	186	5.68%	116	24.73%
	합계	420	9.66%	408	13.65%	270	22.17%
2020	계약직	337	29.12%	322	45.05%	226	46.75%
	시간직	227	42.77%	247	32.80%	157	35.34%
	합계	564	34.29%	569	39.46%	383	41.85%
	평균		21.98%		26.56%		32.01%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는

# 2021 보건 의료 노조 요구안

코로나19와 싸운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충분한 인력을!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반드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목표로 대표 요구안을 수립하고,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펼치고 있습니다.

## 대정부 교섭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초!

어느 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의 문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산별총파업을 결의하자 보건복지부와 교섭의 길이 열렸습니다.

- 5월 31일 대정부 교섭 시작
- 격주 진행, 8월말까지 집중 교섭

## 산별중앙교섭

-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격주 진행
- 68개 사업장 참여 중, 5차 교섭까지 진행중 (7/28 현재)

## 산별현장교섭

- 6월부터 현장교섭 돌입
- 192개 사업장 중 135개 사업장이 교섭 중 (7/28 현재)

## 8월 말까지 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 8월 17일 전 지부 동시 쟁의조정 신청
- 8월 18일 지역별 쟁의조정 신청 보고 결의대회
- 9월 2일 산별총파업 돌입!

가자! 산별총파업으로



**8월 말까지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주 (수) 전 지부 동시선전전  
8/17 (화) 동시 쟁의조정신청  
8/18 (수) 지역별 조정신청 보고 결의대회

8/18(수)~25(수) 쟁의행위 찬반투표

9/2 (목) 산별총파업 돌입